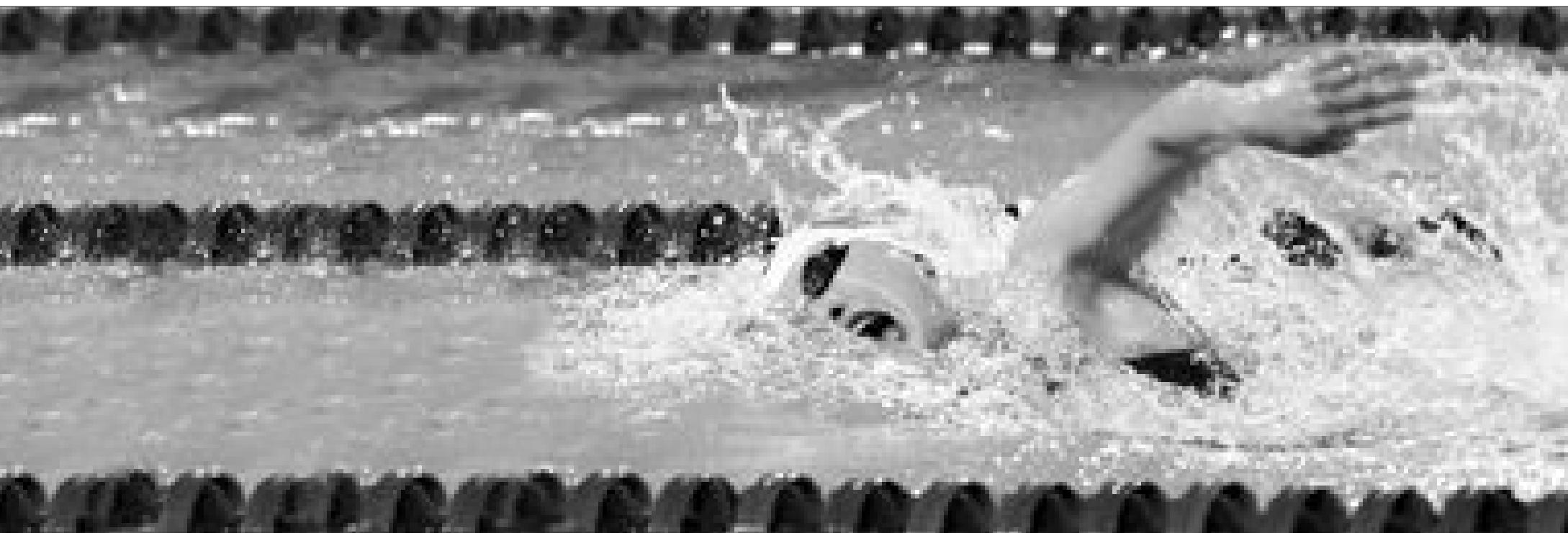


이지은 선수는?

▲생년월일=1989년 6월 18일 ▲출신교=광양 중학교-동광양중-전남제일고 ▲신체조건= 168cm 55kg ▲주요성적= 2004 제33회 전국소년체전 자유형 200·400m 우승, 2005 제77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100·200m 2관왕, 2006 제78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400m 우승, 2006 87회 전국체전 자유형 200m·자유형 400m·계영 400m 우승.



“올림픽 꿈위해 탈모 치료 접었어요”

스포츠 포커스

한국 여자 수영 대들보 전남제일고 이지은 선수



제87회 전국체육대회 3관왕에 오른 후 부모님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이지은(가운데). 왼쪽부터 어머니 안정희씨와 아버지 이영철(맨 오른쪽)씨.

수영장 스타트 라인 위에 서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물살을 헤치고 결승점에 들어오는 마지막 순간만이 떠오른다.

스타트를 알리는 소리와 함께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며 힘차게 입수한 뒤 한 마리 인어처럼 물 위로 솟아나와 팔 다리를 젓는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 희열을 만끽하다 보면 골인지점에 가장 먼저 도착한다.

결과는 금메달. 대회신기록이나 기록작성에는 실패했지만 올해 87회체전에서 3관왕에 오르는 순간이다.

지난 86회 체전 여고부 계영 400m와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자유형 400m에서 은메달에 머물며 3관왕에 실패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금, 은 메달의 색깔이 중요하게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다.

한국 여자수영 자유형의 대들보 이지은(18·전남제일고 2).

이지은은 이처럼 지속한 승부욕을 갖게 된 데는 아릇한 사연이 있다. 수영이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지은은 수영할 때나 시상식 때나 일상생활에서 항상 모자를 벗지 않는다. 그래서 별명이 ‘양궁’(양궁선수들이 쓰는 모자를 항상 착용)이다. 민망한 머리를 감추기 위해서다.

7살 때부터 원형탈모증을 앓아온 이양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설상가상으로 은메달의 털이 빠지기 시작했다. 전신탈모증에 걸린 것. 꿈 많은 사춘기 소녀에겐 감당하기 힘든 이상한 병이다. 차라리 투병생활을 하거나 딱 부러지게 아프면 포기라도 하려면 이 증세는 몸의 통증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

현재 탈모증에 약제를 머리에 바르는 것을 제외하고 뾰족한 치료법도 없는 실정이다. 약을 먹으니 공부도 골질 해 우등생이었던 딸이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고 해 만류 할 생각도 했지만 탈모증에 대한 생각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허락했다.

아버지 이영철(45)씨는 “지은이는 지금까지 탈모증 때문에 부모 속을 써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며 “수영을 통해 이러한 아픔을 풀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고 눈시울을 적셨다.

탈모증 아픔 딛고 체전 3관왕…“이젠 세계무대 도전”

“도핑테스트 때문에 치료 못하지만 수영 전념 할래요”

면 호전될 수도 있지만 도핑테스트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한다.

사춘기에 민감한 나이인데 괜찮나는 기자의 물음에 “한 때는 정말 원망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더욱 수영에 전념할 수 있구요”라며 활짝 웃는다.

이양은 수영을 접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취미삼아 나가던 아파트 삼거(광양 중마동) 수영장에서 열린 대회서 1등을 하고 광양 김태진 수영 전무이사의 눈에 띄어 수영선수의 길로 접어들었

이지은은 수영에 입문 한 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수영을 시작한 지 1년만인 4학년 때 전국소년체전 전남 대표로 뽑혔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50m와 100m에서 3관왕에 차지했으며 전국대회 6관왕의 위엄을 달성하며 주목을 받은 그는 2004년 마침내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하지만 그동안 위기도 많았다. 탈모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차례 있었다.

“왜 나만 이런 병에 시달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사춘기 때 그랬습니다. 연습 후 모자를 벗으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저에게 수영과 물, 그리고 ‘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라며 활짝 웃는다.

이지은은 168cm 55kg의 당당한 체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파워 넘치는 스트로크로 국내 수영 여고부 200m와 400m에서는 단연 발군이다.

특히 게임에 자고 나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균성이 뛰어나 파워만 보강하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은 “현재 컨디션이 좋고, 연습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확신한다”며 “금빛역영을 위해 남은 기간 최대한 훈련에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체의 장애를 딛고 ‘꿈’을 향해 물살을 가르는 이지은의 모습은 이미 아시안게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완성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메달사고는 —
본사 시판부(062)222-8111

광명이용원
고등학교 서문리 헌마이트앞
부이용원화분의 서비스로 모셨습니다.
대표 김 진 오
(061)834-5643

유한회사 농사마트
고등학교 남자리 84-2번지
차체기획부문 도비마트, 금·나동재점
문화·평화·사회·환경·문화·미래기점
(061)835-8300

양 자 강
전월동 고등학교 2층
중화교민문
대표 신 부 대
(062)671-3080

영 화 투
두암동 동화시장 1층
최고의 맛과 신속배달
대표 정 장 희
(062)263-2018

서울항공여행사
금남로 101-101
한국여행사
대표 조 행 수
(062)225-3636

비아비아몰렛
송정로 101-101
한국여행사
대표 조 행 수
(062)942-3200

신 톨 브이
오전 9-21시
최고급 삼성화재 10층
대표 김 창 규
(062)268-1155

김기범노래교실
개인 500㎡ 계란형 10구역 10평
노래를 좋아하는 남녀 회원수시로
대표 김 기 범
(062)225-4445

옹고집술불경비
광산구 신기동 세종고등학교 종합운동장
시길길이 생활집전문
대표 김 재 익
(062)956-4850

황 태 풀
고등학교 남자리 축현별사 1층 두 주제장
동대왕·평·성대왕·황제왕·천문관
대표 신 영 희
(061)834-4860

녹동영성회전집
고등학교 도암동 녹동구 수습관 1층
한국여행사
대표 오 명 속
(061)842-3914

천지(天地)
황금로 101-101
한국여행사
대표 오 명 속
(062)226-9084

초기집술불구이
전월동 헤이마트 건너편
초기집술불구이 연회식준비
대표 조 기 주
(062)671-2353

24시통제감자팀·점
내동로 101-101
한국여행사
대표 조 073
(062)384-0073

코코바비투암점
두암동 라디오타운 APT 1층
1세부터~10세까지 즐거워드
대표 최 유 속
(062)251-6663

오토상사
죽석동 195-3번지
각동 동기사 서류업체
대표 박 종 석
(062)571-0002

동천장어구이
임금동 시찌족집 101
민물 102호
대표 윤 주 영
(062)673-1082

코리아부동산컨설팅
신기동 산신기구 주금간 편리
건축설계·리모델링·아파트 토지·상가·전문
대표 김 성 현
(062)951-1989

소문난식당
고등학교 서문리 타미날리너 상상병원
생산구역, 서대회 낙지, 원자회전문
대표 조 인 속
(061)833-7787

참사랑한의원
전남 신안군 일하면 학교리 663-7번지
대표 나 영 월
(061)271-5155

청 량 보 쌈
두암동 사마리타 미술관과 백화상사점
김제성미술관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
대표 오 미 나
(062)267-7003

신안세우정
법률로 530-7번지
사무실 후기자재 청정한 선진민족
대표 이 순 레
(062)653-3379

신그린황토산업
충장로 474 금방빌딩 1005호
황토침, 황토미용품, 부동산개발
등업 또는 투자하실 여러분은 구함
(017)605-2277

주 비
도산동 도산동사무소 101평
액세리에 1층
대표 조 절 미
(062)843-1175

리처공인증개사
매월 579-5번지
토지, 상가, 경·폐지 취득설정
대표 조 선 제
(062)682-0034

화실플리워카페
봉선동 무한도자 친환경 생활문화
경복궁 스트리트 쿠키점
대표 전 자 선
(062)655-2332

신 가 식 당
광주 서기동 347-1번지
해장국, 백灼도로
대표 김 협 자
(062)854-1015

한국여행사 전남제일고교구부
고등학교 남자리 학교회관 1층
음식점 신규등록 및 관리업무
대표 강 영 길
(061)835-5303

임해외과의원
전남 신안군 일하면 662-1번지
대표 신재호
(061)271-7583

둔기인테리어
두암동 현대 APT 2차동문앞
주방, 화장실, 인테리어, 보일러수리
기능사 자격보유자 직접시공
(062)430-1541

또아포장마차
두암동 시화바스터미널 6층
대양한국화재와의 세션화시작입니다
대표 김 육 순
(062)524-9219

팔 쥐 네 팔 족
임동로 101-101
한국여행사
대표 김 경 선
(062)524-0408

백제의뜰
중동로 708-14번지
오·제2호 2층 151평
액세리에
대표 강 경 자
(062)529-5288

메리트노래뱅크
유동동 한대백화점 2층
화신식당 회고·싸이드로 보관하겠습니다
대표 양 경 님
(062)522-9729

남 원 추 어 탕
광산구 우신동 시영1차 APT 2동
곰탕·추어탕 전문
대표 김 병 운
(062)945-8092

맑은샘화의원
광주 서기동 347-1번지
한국여행사 전남제일고교
원장 양 재 선
(062)575-8666